

전주세계소리축제, 전통예술 미래 연다

13~17일 전통음악 유통 활성화 위한 뮤직 마켓 ‘소리 넥스트’ 개최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왕준)는 오는 13~17일 전주 일원에서 전통음악 유통 활성화를 위한 뮤직 마켓 ‘소리 넥스트(SORI NEX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리축제 기간에 함께 진행되는 소리 넥스트는 전문가 대상의 기획·공모 쇼케이스, 토크, 팸투어,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전공생을 위한 교육형 프로그램인 소리캠프와 마스터 클래스, 일반 관객을 위한 어린이 소리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쇼케이스의 아티스트 선정부터 축제 무대에 오르기까지 총 22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마켓에 참여한다. 특히 기획단에는 천재현(전통예술 연출가, 소리프론티어 예술감독), 계명국(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감독), 김미소(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총감독), 이수정(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예술감독)이 참여해 향후 3년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뮤직 마켓을 함께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14~15일 프로젝트와 인사이드, 아시아 문화예술 생태계의 연결과 확장, 전통예술 해외 진출 모델 전환과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올해 마켓에는 진 리(Jean Lee, IMG Artists 총괄 프로듀서, 미국), 클라우디아 발라델리

(Claudia Balladelli, Axe Worldfest 감독, 캐나다), 리사 브래니건(Lisa Branigan, Re-Play Music C.L.C & Green Futures Festivals 창립 디렉터, 영국), 보제나 쇼타(Bozena Sota, Ethno Port Festival 감독, 폴란드), 하이잉 송(Haiying Song, Productions Yari 감독, 캐나다·중국), 샌디 간(Shandy Gan,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홍콩), 레이첼 쿠퍼(Rachel Cooper, Asia Society 미국 본부 & 글로벌 지부 감독, 미국) 등 총 8명의 해외 공연예술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내 공연예술 전문가는 김수연(수립문화재단 선임 프로듀서), 박준우(한국대중음악상 사무국장), 백현태(강릉아트센터 공연기획팀 PD), 안주은((재)부산문화회관 공연예술팀 팀장), 이재훈(뉴시스 팀장), 전선미(제주아트센터 공연운영팀 PD), 조정호(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문화사업부 본부장), 차현나(서울남산국악당 실장), 탁연재((재)고양문화재단 공연사업팀 과장), 한윤진(서울남산국악당 공연예술팀 과장) 등 10명이 축제를 찾는다.

쇼케이스에는 ‘기획 쇼케이스’ 8개 팀과 ‘공모 쇼케이스’ 4개 팀이 무대에 오르며 13~15일까지 우진문화공간, 더 뮤지션, 전북도립미술관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어린이 소리축제’

에서는 다채로운 어린이 공연이 펼쳐진다. 폴란드 여성 4인조 앙상블과 함께하는 ‘폴란드 전통노래 교실 <코시 Kosi>’는 8월 13~14일 우리놀이터 마루담에서 진행된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확장 현실(XR) 기반의 몰입형 공연 ‘게임으로 즐기는 XR판소리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는 8월 15~17일까지 남부시장 모이장에서 선보인다.

교육형 프로그램 <마스터 클래스>는 판소리 전공생들이 명창에게 직접 판소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되며, 일반 관객들도 수업을 참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홍보가 보유자인 아나조 명창이 8월 15일, 작벽가 보유자 윤진철 명창이 8월 16일 하안양옥집에서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한편 전통음악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리캠프>는 올해 2기 모집을 통해 총 20명을 선발했으며, 14~16일 3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 일대에서 마련된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소리 넥스트 기획단장)은 “올해 소리축제는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선정 축제’로서 첫해를 맞이하고 국내외 공연예술 플랫폼 ‘뮤직 마켓 <소리 넥스트>’를 새롭게 론칭했다”며 “<소리 넥스트>는 전통 예술가와 전문가가 연결되고, 예술가들이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커다란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는 지난 9일 저녁, 달빛정원 개관과 여름 물축제를 기념해 개최한 ‘남원관광 비전선포식’에 2,000여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하는 성황속에 마쳤다.

‘남원관광 비전선포식’ 성황리 개최

최경식 시장 “남원은 시민과 함께 관광으로 진화할 것”

남원시는 지난 9일 저녁, 달빛정원 개관과 여름 물축제를 기념해 개최한 ‘남원관광 비전선포식’에 2,000여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하는 성황속에 마쳤다.

사람의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린 본행사는 ‘달빛콘서트’ 1부와 2부 사이에 자연스럽게 연결돼,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민선 8기 3년간 변화한 남원관광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시민들과 효과적으로 공유했다.

신관사포 행렬단, 향이몽이 등 대표 캐릭터, 춘향 진·미의 사회, 대표 공연 콘텐츠 월광포차가 참여해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남원의 관광자원과 매력을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는 무대로 구성됐다.

행사는 △남원관광 있다 행렬 △관광비전 영상 상영 △비전선포사 발표 △시민과 함께하는 약속의 손 핸드프린팅 순으로 이어졌으며, 시장·도의원·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정월이 참여한 핸드프린팅은 향후 남원관광 비전의 출발점이자 시민 자부심의 기록으로 보존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민선 8기 3년 동안 광한루원 중심의 전통 관광에서 벗어나 요천 수변·달빛정원·피오리움·합파우예술특화지구로 확장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월광포차, 전통예술과 디지털이 융합된 미디어아트 콘

텐츠를 도입해 ‘스쳐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이뤘다.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은 최근 국토교통부 ‘2025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공모사업’에 ‘KTX남원역 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되면서 한층 더 힘을 얻게 됐으며, 남원시는 2030년까지 406.210㎡ 규모의 KTX 남원역세권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원금 최대 100억원과 세제 혜택, 인허가 특례를 적용받아 총 1,958억원 규모로 개발을 추진한다.

2030 달빛철도 개통과 전라선 고속화로 KTX 남원역이 유일한 환승역이 되는 만큼 △지역 먹거리와 관광을 연계한 푸드맵 △전통문화 기반 청년창업 공간 △채류형 관광허브를 조성해 관광·문화·산업이 시너지를 내는 콤팩트 시티로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비전선포식 축사에서 “남원은 더 이상 ‘춘향’과 ‘광한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 숨쉬는 체류형·지속가능 관광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원은 더 이상 스쳐가는 도시가 아닙니다. 남원은 머무는 도시입니다. 남원은 시민과 함께 관광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JB문화공간, ‘어린이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이 전북 지역 어린이들에게 공연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가 및 예술교육기관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5 어린이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오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어린이 대상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예술가 개인, 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피아노·음악학원 포함), 사회화기업, 비영리단체 등이며, 특히 전북 지역 어린이가 공연의 주제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우대한다.

지원 분야는 음악, 연극, 무용, 낭독극, 인형극, 전통예술, 융복합예술 등 공연예술 전 장르이며, 지역 음악학원 및 예술교육기관이 기획하는 어린이 발표회도 포함된다. 선정된 10개 내외의 팀에는 팀당 5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전주 JB문화공간 공연장 및 부대시설의 무료 대관, 기본 음향, 디자인 지원 등이 제공된다.

한편, 이번 공모는 8월 중 심사를 거쳐 9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 발표와 영상 아카이빙을 통해 사업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7월 ‘화제의 책 200선’ 발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제주 지역 판매 순위 함께 공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재선, 이하 출판진흥원)은 출판유통통합전시장(이하 출판전시장)을 통해 7월 ‘화제의 책 200선’을 발표했다.

출판전시장은 2021년 9월 개통해 운영 중이며, 주요 유통사 및 지역서점의 도서 판매 데이터를 수집해 도서의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 도서관 대출 통계 열람, 도서관 수서 기능 지원 등 다양한 산업 통계 및 홍보자료로 활용한다.

‘화제의 책 200선’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를 비롯해 전국 327개 지역서점에서 제공한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되었으며, 7월 한 달간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를 순위별로 정리한 것이다.

7월 ‘화제의 책 200선’을 살펴보면, 성혜나 작가의 소설집 ‘흔모노’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 양귀자 작가의 ‘모순’, 김애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김금희 작가의 ‘첫 여름, 완주’, 한강 작

가의 ‘소년이 온다’,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 등이 상위권에 오르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다.

신간 중에서는 지난 6월 말 출간된 투자 실용서 ‘박공희의 연금 부자 수업’이 새롭게 10위에 올랐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잠미와 나이프’와 ‘가공범’이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7월 전체 도서 매출액은 1,576억원으로 전월(1,211억 원) 대비 약 30.1%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1,532억원) 대비 약 2.9% 증가했다.

이번 ‘화제의 책 200선’에서는 도서 판매 순위뿐 아니라, 서울·제주 지역별 판매량 순위도 함께 공개되었다. 서울 지역에서는 ‘돈이 자유다’가 상위권에 올랐고, 제주 지역에서는 ‘아무튼 여름’, ‘여름여 사진’, ‘나한테 왜 그랬어’, ‘제철행복’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해 종합 판매 순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반면, 종합 판매 순위에는 포함된 ‘흔한 남매’는 지역별 판매량 순위 20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오상근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오는 9월 18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64회 정기연주회가 그 어느 때 보다 예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단순한 연주회가 아닌 고향 군산의 품으로 돌아오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귀환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의 주인공은 군산 출신 지휘자 송

안훈과 바리톤 문정현. 두 사람은 협연자로 나서, 세계 무대에서 갖고 뒀을 음악성과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관객과 나누는 뜻깊은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두 군산 출신 예술가가 고향에 헌정하는 음악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입장료는 전석 5,000원으로 9월 16일까지 티켓링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빗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